

삼성정밀화학, 의약코팅제 사업 강화

미국 Sensient와 공급계약 체결 ... 미국 및 유럽시장 마케팅 총력

삼성정밀화학(대표 이용순)이 미국 Sensient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의약코팅제 사업을 강화한다.

삼성정밀화학은 미국 Sensient와 전략적 제휴 및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까지 3년 동안 최소 1000만달러 규모의 AnyCoat(의약용 코팅제)를 공급키로 했다.

AnyCoat는 의약용 캡슐 및 알약 코팅제의 원료로 사용돼 약효 성분을 보호하고 쓴 맛이나 냄새 등을 제거해 약의 복용성을 증가시키며, 특정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.

삼성정밀화학은 2000년 말 AnyCoat를 개발·상업화한 이후 Kosher인증(유대인 품질인증), BGMP(우수 원료 의약품 제조설비 인증), ISO9002 인증, KT 마크 및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실사 등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.

이어 2002년 하반기부터는 미국, 유럽 등의 제약기업들로부터 주문 물량이 증가하면서 최근 50% 추가증설을 완료하는 등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있다.

삼성정밀화학은 Sensient와의 협력을 통해 AnyCoat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앞으로 미주, 유럽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.

또 AnyCoat제품을 의약용 외에도 식품이나 화장품용 코팅제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해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며, 친환경적 코팅제로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7/30>